

## 찬란한 백제문화의 터전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서해안을 끼고 있는 내포지역과 충청의 젖줄 역할을 해온 금강을 포함하고 있는 충남지역은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 금강 유역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 유적은 부여 송국리 유적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충청 지역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곳이 찬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점이다. 백제사, 백제문화를 거론하면, 혹자는 망국의 역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지구상에 등장했던 나라 가운데 유사 이래 도대체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었던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제국도 망했고, 당대에 인간 거주지역으로 알려졌던 영역의 절반을 지배했던 몽고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와 같이 명멸했던 무수히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처럼 백제도 망한 것에 불과하다. 고구려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는데, 우리는 유독 백제가 망한 것에 대해 강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찬란했던 백제문화가 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에서 중흥하던 백제는 전쟁다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나당연합군의 기습공격에 갑자기 망하고 말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백제의 멸망에 대해 강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지니게 되었다.

찬란한 백제문화는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바닷길’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바닷길은 흡사 오늘날의 철도 교통이나 고속도로망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만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내륙의 깊숙한 골짜기와 평야지대보다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화전파 루트였고, 한반도의 서해안을 경유하는 이 해로는 중국이나 일본을 연결하는 대외 교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일찍이 이 해로는 선사시대 한강유역의 문물과 통하는 통로였고, 그에 연한 포구들은 백제 시대에는 중국문화와 처음으로 만나는 현관이기도 하였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마애불은 이곳이 고대에 중국 선진문화 수용의 창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애불은 자연 암벽에 조각한 불상을 말한다. 마애불의 기원은 서기전 3~2세기 경의 인도 아잔타나 엘로라 등의 석굴사원에서 볼 수 있고, 중국의 윈강·룽먼 등의 석굴사원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백제는 태안의 백화산 중턱에 있는 태안마애삼존불을 통해 마애석상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인접한 서산마애삼존불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서산마애삼존불은 중국의 불교문화가 태안반도를 거쳐 부여로 가던 행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즉 태안반도에서 서산마애불이 있는 가야산 계곡을 따라 계속 전진하면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 이 길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통하던 옛길이었다. 이 옛길의 어귀가 되는 서산마애불 인근은 산세가 우수하고 천하의 경승지여서 7세기 초에 중국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운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고학자 김원룡 전 서울대 교수는 이 서산마애삼존불의 신비한 미소를 ‘백제의 미소’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예산에도 화전리사면석불이 있는데, 이는 백제시대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사방불로, 세련미에서도 서산마애불에 버금갈 만하다. 이와 같은 내포문화권의 마애불 전통은, 이후 경북 봉화의 마애석불상을 거쳐 경주 남산의 여러 마애석상에까지 이어졌고, 드디어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니, 실로 우리나라 마애불 조상(彫像)의 선구가 되는 셈이다.

서해안을 통해 수용된 중국의 선진 문화는 백제후기의 수도였던 금강문화권에서 활짝 꽃을 피웠다. 공주는 475년(문주왕 1)부터 538년(성왕 16)까지 5대 64년간, 부여는 538년부터 660년에 백제가 망할 때까지 6대 123년간 각각 백제의 수도였다. 현재 공주에는 백제의 왕궁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특히 고고학계의 10대 발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무령왕릉이 있으며, 부여에는 부소산성과 낙화암, 정림사지 5층석탑, 궁남지, 능산리고분군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1993년에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는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이루어진 백제 공예품의 진수(眞髓)로 평가

되고 있다. 이들 공주와 부여의 백제문화는 바로 금강을 끼고 발달한 것이다.

공주와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시대, 사비시대에 주목되는 백제의 왕으로는 동성왕, 무령왕, 성왕, 무왕, 의자왕 등을 들 수 있다. 동성왕(東城王, 재위 479~501)은 백제 제24대 왕으로 금강 유역권을 지배기반으로 한 신진세력 등용, 신라와의 혼인동맹, 중국 남제에 사신 파견, 궁궐의 중수와 수도 방어망 정비 등을 통해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초기의 정치적 불안을 종식시키고,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였다. 비록 새로 부각한 신진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암살당했으나, 그는 무령왕·성왕대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71년에 발굴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령왕릉의 주인공 무령왕(武寧王, 재위 501~523)은 백제 제25대 왕으로 40세인 501년에 즉위하여 23년간 재위하다가 62세인 523년에 돌아갔다. 키는 8척이요,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성품은 인자하고 관대하여 민심이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무령왕은 대내적으로 즉위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왕권의 강화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에 의해 상실한 한강 유역을 되찾는데 전력을 기울여 백제가 예전의 국력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26대 성왕(聖王, 재위 523~554)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에 결단성이 있었다. 그는 북으로 고구려에 침탈당한 영토를 회복하는가 하면, 제2의 도약을 위해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대역사를 단행하였고, 국가의 통치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백제가 명실상부한 국가체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돈독한 신앙심을 바탕으로 사찰 창건과 불경 번역, 불교의 교류에 앞장섰고, 이로써 백제가 나름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군주이기도 하다.

서동요로 우리에게 친숙한 제30대 무왕(武王)은 600년부터 641년까지 42년간이란 오랜 기간 재위하면서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 무왕은 재위 기간 중 활발한 신라와의 전쟁 수행과 더불어 사비궁의 중수, 왕흥사와 미륵사의 창건과 같은 대규모 역사(役事)를 단행할 정도로 전체왕권이 강화되었고, 대외적 팽창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무왕의 재위 시기

는 사비시대 정치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시기였으며, 정치적 안정기였다.

의자왕(義慈王, 재위 641~660)은 태자 당시 부모를 효로써 섬기고 형제와 우애하여 ‘해동증자(海東曾子)’로 불리었다. 이러한 평에 걸맞게 의자왕은 유교 정치사상을 강조하여 취약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의자왕은 즉위 초 국내를 시찰하고 죄수들을 재심사하여 사형수 외에는 모두 방면(放免)하여 민심 수습에 적극 나섰다. 신라 대야성 등 40여성을 회복하였으나, 나당군을 막지 못해 결국 항복하고 당에서 사망하였다. 최근 의자왕에 대해서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망국의 국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의자(義慈)’라는 호칭도 의미심장하다.

백제의 충절인으로는 계백과 성충·흥수 등이 있다. 계백(階伯, ?~660)은 백제의 장군으로 신라군에 맞서 결사대 5천명과 함께 황산벌에서 전사하였다. 부여 팔총리가 태생지로 알려져 있으며, 논산 충곡리에 그의 묘소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부여의 삼충사·의열사와 논산의 충곡서원에 그의 위패가 배향되었다. 성충(成忠, ?~656)과 흥수(興首)는 의자왕에게 직간을 하다가 옥사하거나 귀양갔다.